



현대위아 오승훈 러시아법인장과 알렉산더 베글로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가 지난 달 3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에서 열린 엔진공장 기공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현대위아, 러시아에 車공장 신축

내년 10월부터 年 24만대 엔진 생산 유럽내 상황에 따라 생산엔진 다변화

현대위아가 러시아에 첫 자동차부품 공장을 세우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엔진 공장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기공식에는 알렉산더 베글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 권동석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오승훈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의 이번 투자는 러시아 정부의 기업투자 촉진제도(SPIC)를 통해 이뤄졌다. 러시아는 현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이 현지 생산 비용을 이행할 경우 부품 수입 관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기존 중국 산둥성 소재의 엔진공장에서 생산한 엔진을 러시아 및 유럽으로 수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해 수주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대위아는 중국 생산 라인의 일부를 러시아로 이전하기로 했다.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장 오승훈 상무는 기공식 인사말에서 "러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엔진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고 수준의 엔진을 생산하며 러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현대위아의 높은 기술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위아의 첫 유럽 내 자동차부품 생산기지인 러시아법인 엔진공장은 총 13만2000㎡(약 4만평) 규모의 부지에 지어진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연 24만대 규모의 승용 차량용 엔진을 생산하게 된다.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은 우선 1600cc 가솔린 엔진을 생산한 이후 향후 유럽 내 상황에 따라 생산 엔진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량 또한 러시아 및 유럽 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 30만대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차 '2021 셀토스 그레비티'.

기아車, '2021 셀토스' 안전·편의사양 강화

연식 변경 모델 출시, 판매 돌입 후석 승객 알림, 전 트림 기본 적용

기아차는 1일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2021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이번 연식변경 모델은 첨단 안전 사양과 고객 편의 사양을 강화했다.

'2021 셀토스'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FCA-JT), 후석 승객 알림 등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신규 적용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그레비티' 모델 운영이 특징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셀토스는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이 대거 적용돼 높은 인기를 끈 하이클래스 소형 SUV다. 기아차는 '2021 셀토스'에 후석 승객 알림을 전 트림 기본 적용해 고객 편의성과 안전

수준을 대폭 높였다.

한편 기아차는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높인 '그레비티'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레비티 모델은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18인치 블랙 전면가공 휠 ▲메탈릭 실버 칼라 디자인 포인트 ▲그 레이 인터리어가 적용돼 더욱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셀토스 그레비티 모델은 '도형의 날카로운 엣지'를 디자인 모티브로 했고, 블랙과 실버 칼라의 대비가 특징이다.

'2021 셀토스'의 판매가격은 ▲1.6터보 가솔린 모델 트렌디 1934만원, 프레스티지 2248만원, 시그니처 2454만원, 그레비티 2528만원 ▲1.6 디젤 모델 트렌디 2125만원, 프레스티지 2440만원, 시그니처 2646만원, 그레비티 2719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소비자용 4비트 8TB SSD 출시

삼성, 스토리지 용량 한계 극복

870 QVO 시리즈

8TB/4TB/2TB/1TB 4개 모델 연속읽기 속도 560MB/s로 향상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스토리지 용량 한계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7월 1일 소비자용 4비트(QLC) SATA SSD, '870 QVO'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870 QVO 시리즈'는 8TB(테라바이트)모델과 4TB/2TB/1TB 등 4개 모델로, 업계 최대 용량이다. 6월 30일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과 중국 등 글로벌 40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4비트(QLC) 낸드플래시는 1개의 셀(Cell) 당 4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고용량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다.

용량을 두 배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SATA 인터페이스 한계에 근



삼성전자 870 QVO.

/삼성전자

접할 정도로 향상시켜 고용량·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텔리전트 터보 라이트 기술로 연속읽기, 쓰기 속도를 각각 560MB/s와 530MB/s로 향상시켰으며, 임의 읽기 속도 또한 98K IOPS(초당 입출력작동)로 기존대비 13% 높여 더욱 빠른 부팅과 멀티태스킹, 게이밍에 최적화된 컴퓨팅 환경 구현이 가능하다.

8TB 모델의 경우 최대 2,880TB의 총 쓰기 가능 용량(TBW)을 제공하고

보증기간은 최대 3년이다.

또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Magician 6' 소프트웨어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사용편의성을 높였고 암호화된 제품을 초기화하거나 에러를 사전에 검출하고 수정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4비트(QLC) 낸드플래시에 기반한 '860 QVO'시리즈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까지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해 소비자용 고용량 SSD 시장을 빠르게 확대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 Biz팀 맹경무 상무는 "870 QVO는 기존 제품 대비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높여 SSD시장을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870 QVO는 HDD사용자는 물론 고용량, 고성능을 원하는 SSD 사용자에게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아우디, 순수 첫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 공개

한국시장 공식 출시, 1억1700만원 100만원 상당 충전 크레딧 기본 제공

이렇다할 경쟁자가 없던 프리미엄 전기 SUV 시장에서 아우디가 'e-트론'으로 진짜 미래 프리미엄 모빌리티를 제시한다.

아우디코리아는 1일 서울 강남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를 공개하고 한국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e-트론은 아우디가 만든 첫 순수 전기 SUV다. 포르쉐 타이칸과 함께 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LG화학이 만든 96kWh 배터리와 전기모터 2개를 탑재했다.

e-트론은 사이드 미러에서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다. 세계 최초로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로 대체한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적용해 훨씬 미래적이고 날렵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를 사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부분 제프 매너링 사장과 e-트론.

/아우디코리아

해 즉후방을 뚜렷하게 표현해준다.

이는 주행 성능까지 높여줬다. 공기저항 계수를 0.27로 줄인 것. 이에 따라 e-트론은 최고출력 360마력에 최대 토크 57.2kg·m을 발휘할 수 있다.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최고 408마력에 최대토크 67.7kg·m까지 폭발적으로 달린다.

e-트론은 최대 주행거리가 307km에 불과하다. 대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브레이크 사용시까지

충전을 해줘 효율을 최대한 높였다.

배터리는 12개 셀과 36개 셀 모듈로 구성된다. 1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데, 아우디는 전국 네트워크망에서 급속 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35대 충전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가격은 1억1700만원이다. 올해 출고 고객에는 100만원 상당 충전 크레딧을 기본 제공하며, 가정용 충전기 설치도 무료로 해준다. /김재용 기자

LG헬로비전, 헬로tv 채널 확대 개편

시니어 채널 등 21개 신규 편성

LG헬로비전은 케이블TV 서비스인 헬로tv의 채널 확대 개편을 실시하고, 프리미엄 케이블TV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개편은 ▲신규 채널 확대 ▲개별·중소 PP 상생 ▲장르별 채널 배치에 중점을 뒀다.

우선 헬로tv에 21개의 신규 채널을 편성하며, 최대 247개 채널을 제공한다. 시니어 채널인 '시니어TV', '아이넷라이프'를 비롯해 키즈 채널인 '브라보키즈', '뽀요TV', 스포츠 채널 '볼링플러스', '스크린골프존' 등이 추가됐

다. 이외에도 영화, 음악, 해외드라마, 교양 등 다채로운 장르의 채널들을 보강했다.

특히 이번 신규 편성되는 채널 중 90% 이상이 개별·중소 PP다. LG헬로비전은 PP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료방송 고객 만족을 제고하겠다는 포석이다.

LG헬로비전은 강력한 상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케이블TV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고도화된 하드웨어도 결합할 계획이다. 한편, 채널 개편은 이날부터 9일까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

장기이용고객 혜택 강화

LG유플러스가 5년, 7년, 10년 이상 모바일 장기 이용고객 혜택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5년 이상 모바일 장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선물과 제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U+멤버십 장기 고객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 고객 감사 프로그램'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U+모바일을 5년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기분 좋은 휴가 지원 3중 쿠폰'을 제공한다. 또 U+모바일 7년, 10년 이상 이용자에게는 토크인도너츠 먼치킨 및 푸레쥬르 케이크 선물이 추가로 제공된다. /김나인 기자